

A Statistical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Mentality in Reading and the Format of Books for them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 시리즈 7>

兒童 圖書의 體裁에 關한 研究調查

李 貞 烈

前어린이회관司書

編輯者註: 本稿는 1972年度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司書敎育專攻 碩士學位論文的 要約이다.

目 次

- I. 序 論
- II. 兒童圖書의 評價基準
- III. 體裁에 關한 調查
- IV. 結 論

I. 序 論

人間의 敎育은 全生涯에 걸쳐 이루어지며, 人生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方法이 讀書이라고 생각할 때 讀書의 趣味, 習慣과 讀書力의 培養은 敎育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한다고 보겠다.

讀書習慣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兒童期에서부터 意圖的인 敎育을 통해서만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兒童을 對象으로 한 圖書은 반드시 敎育的인 意義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敎育的인 이해가 부족한 一部出版界에서는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最近에 이르러 學校圖書館, 學級文庫의 發達, 몇몇 기관의 優良兒童圖書 推薦 등으로 이를 改善하기 위한 努力이 뚜렷하다.

本 研究는 兒童圖書의 體裁를 分析·調查하여 앞으로 出版될 兒童圖書가 內容面은 且置하고, 體裁에 있어서 優秀한 圖書의 出版에 도움을 줄 資料를 마련하

고자 하는데에 그 目的을 두었다.

「造本批判」의 著者 江守賢治氏의 말을 빌리면, 製本上 優秀한 圖書는 外觀이 아름다우며,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차분한 느낌을 준다. 다음에 페이지를 열어 봤을 때 活字가 읽기 쉽게 짜여있고 圖版이 깨끗이 印刷된 것을 볼 수 있다. 읽는 중에도 編輯者의 注意와 親切이 책의 구석구석까지 스며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읽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책의 眞價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體裁를 調查하기에 앞서 먼저 兒童圖書의 評價基準을 정하고 어린이회관 도서실의 全藏書를 調查對象으로 하여 한권씩 조사하여 그 結果를 表示한다.

II. 兒童圖書의 評價基準

強制力으로써 어린이에게 무리하게 책을 읽힐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어린이에게 있어 한권의 책이 어떤 경우에 좋은 책이 되는가 하면, 그 어린이가 그 책을 읽고 하나의 貴重한 經驗을 얻었을 때이다. 그러므로 成人들이 말아야 할 兒童의 讀書指導에 있어서의 諸問題는 더욱 重要함을 알게 된다.

圖書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한 圖書에 대해서 첫째, 文章이 簡潔·明確하고 알기 쉬우면서 筆者가 願하는 感動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둘째, 優秀하고 充實한 內容 셋째, 利用對象에게 適合한 資料인가를 考慮해야 하며 넷째, 책의 印刷·製本 등 製作上의 質的水準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本稿에서는 네번째 問題를 重點的으로 다루겠다.

體裁에 대한 評價基準을 細部的으로 나누어 보면,

① 活字의 크기: 視力이 充分히 發達되지 못한 兒童

들의 讀書物에서는 活字의 크기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近視眼 豫防을 위한 活字 크기의 研究 結果, 滿 7歲兒는 12pt., 滿 9歲兒 10pt., 10歲兒 9pt.로 나와 있는데 本稿에서는 使用된 各號의 活字를 類別로 나누어 調査하고 다시 퍼센트로 나타낸다.

② 活字의 排列: 讀書할 동안의 眼球運動은 停留와 飛躍을 반복하는데 停留할 때 文字가 읽혀지며, 縱·橫書의 比較에서는 無意味한 材料에는 橫書가 좋고, 有意味한 文章에는 縱書가 有利하다.

③ 그림: 어떤 事實을 具體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一般圖書는 물론 兒童圖書에 있어서 그림의 위치는 중요한 것이다. 事實的으로 그려진 插畫, 藝術的인 色圖, 地圖, 圖表가 이 項에서 中心이 되겠으나 本調査에서는 有·無만을 체크하기로 한다.

④ 製本: 製本은 讀者의 눈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는 바, 兒童圖書는 成人用에 비해 보다 견고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製本樣式을 취해야 한다. 便宜上 洋裝, 半洋裝, 호부장으로 나누고 다시 洋裝을 角背와 環背로 區分하였다.

⑤ 印刷: 純白色紙에 黑色 잉크로 印刷하는 것이 標準이라하며, 잉크와 종이 색에 따라 條件이 달라진다. 전부가 黑色 잉크를 사용했으므로, 여기서는 紙質, 印刷中 紙質에 대해서만 체크한다. 무광택의 모조지가 눈에 피로가 쉬 오지 않고 이용도가 많은 경우에도 오래 견딘다.

⑥ 索引: 책끝 부분에 “찾아보기”란을 마련하는 것은 文學·傳記類外에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⑦ 興味: 여기서는 體裁에 대한 評價의 綜合的인 것을 다루며 흥미로운 광고 삽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⑧ 특장: 體裁上 他圖書와 다른 부분 즉 그 圖書만이 갖는 特徵을 체크한다.

### Ⅲ. 體裁에 관한 調査

調査對象 兒童圖書의 卷數를 類別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調査對象圖書

단위: 권

類別	卷數	類別	卷數
哲學 (100)	31	藝術 (600)	15
宗教 (200)	9	語學 (700)	7
社會科學 (300)	12	文學 (800)	563
純粹科學 (400)	112	歷史地理 (900)	311
技術科學 (500)	28	計	1,088

本調査에서 總類를 除外한 것은 兒童圖書의 總類는 대부분이 辭典類이므로 一般圖書의 基準과 體裁가 맞지 않기 때문이며, 800과 900類가 80.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現在 出版되고 있는 우리 나라 兒童圖書의 實情과 어린이회관 圖書室의 類別藏書利用總計 및 기타자료를 살펴볼 때 무리한 方法은 아닌 듯하다.

### A. 活字의 크기

活字의 크기

단위: 권

活字 크기 類別	7 pt	8 pt	9 pt	10 pt	12 pt	14 pt	16 pt	計
哲學			2	21	6	1	1	31
宗教			1	8				9
社會科學		1		11				12
純粹科學		30	23	36	11	12		112
技術科學		10	12			6		28
藝術			9		6			15
語學				6		1		7
文學	5	58	190	218	62	24	6	563
歷史地理		52	153	67	39			
計	5	151	390	367	124	44	7	1,088
百分比	0.5	13.9	35.8	33.7	11.4	4.0	0.6	99.9

※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음에 活字의 크기에 대해 年度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活字의 크기에 대한 年度別分類

단위: 권

活字 年度	7pt	8pt	9pt	10pt	12pt	14pt	16pt	計
64				1	1			2
65				2				2
66				10	2			12
67				13	8	1		22
68	5	13	83	48	4	17	6	176
69		21	131	108	46	6		312
70		66	87	173	34	21	1	382
71		50	64	38	23			175
72				1				1
不明			1	3				4
計	5	151	390	367	124	44	7	1,088

出版圖書量이 많은 68—71年間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9pt 이하의 圖書(68~71년)

단위 : 권

년도	출판도서수	9pt 이 하 의 도서	
		권 수	百 分 比
68	176	101	57.9%
69	312	152	48.7%
70	382	153	40.1%
71	175	114	65.1%

68년에서 70년까지에는 조금씩 커졌으나 다시 71년에 이르러 작은 活字를 사용한 도서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아직까지 漸次的發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 活字의 排列

活字의 排列에서 다른 餘白은 精確한 數値에 的함이 아니고 行間의 거리와 全體紙面에서 차지하는 印刷된 부분의 比重을 主觀的인 判斷에서 查考하였다.

活 字 의 排 列

단위 : 권

類別	活字排列				計
	橫 書		縱 書		
	여백충분	여백부족	여백충분	여백부족	
哲 學(100)	31				31
宗 教(200)	9				9
社會科學(300)	11		1		12
純粹科學(400)	112				112
技術科學(500)	28				28
藝 術(600)	15				15
語 學(700)	7				7
文 學(800)	521	37	5		563
歷史地理(900)	282	29			311
計	1,016	66	6		1,088
百 分 比	93.4%	6.1%	0.5%		100%

C. 그림

그 림

단위 : 권

種類 主題	圖 畫								計		
	그림	色圖	地圖	圖表	寫眞	그사 림진	그도 림표	그지 림도		지사 도진	없음
哲 學	24							5		2	31
宗 教	2	7									9
社會科學	12										12
純粹科學	57	10			13	20				12	112
技術科學	26				2						28
藝 術	3				12						15
語 學	2									5	7
文 學	440	12			20	76		10		5	563
歷史地理	226				48			6	6	25	311
計	792	29			20	151	20	21	6	49	1088
百分比	72.8	2.7			1.8	13.9	1.8	1.9	0.6	4.5	100

그림, 地圖, 圖表, 寫眞 등에 대한 評價는 正確한 基準을 定할 수 없어 취급하지 못했다. 한 책속에 그림 등의 有無만을 調査하였다.

D. 製本

반양장. 호부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장본 중에서 각배로 된 圖書는 상당한 파손율을 보이는데 環背가 44.4%에 불과하므로 점차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製 本 樣 式

단위 : 권

類別	洋 裝		반양장	호부장	計
	環 背	角 背			
哲 學(100)	10	17		4	31
宗 教(200)	7		1	1	9
社會科學(300)	11			1	12
純粹科學(400)	39	65	8		112
技術科學(500)		26	2		28
藝 術(600)		12		3	15
語 學(700)	2	5			7
文 學(800)	200	310	32	21	563
歷史地理(900)	214	93	2	2	311
計	483	528	45	32	1,088
百 分 比	44.4%	48.5%	4.1%	2.9%	99.9%

E. 印刷

印 刷

단위 : 권

類別	紙 質			計
	경 지	모조지	아트지	
哲 學(100)	31			31
宗 教(200)	9			9
社會科學(300)	12			12
純粹科學(400)	100	12		112
技術科學(500)	28			28
藝 術(600)	15			15
語 學(700)	6	1		7
文 學(800)	532	31		563
歷史·地理(900)	299	12		311
計	1,032	56		1,088
百 分 比	94.9%	5.1%	100%	100%

F. 索引

索 引

단위 : 권

類別	索 引		計
	有	無	
哲 學(100)		31	311
宗 教(200)		9	9
社會科學(300)		12	12

純粹科學 (400)	12	100	112
技術科學 (500)		28	28
藝術 (600)	6	9	15
語學 (700)		7	7
文學 (800)		563	563
歷史·地理 (900)		311	311
計	18	1,070	1,088
百分比	1.7%	98.3%	100%

G. 興味

全體的인 考案이 兒童들의 호기심을 誘發시킬 수 있  
나를 主觀的으로 판단하였다.

興 味

단위 : 권

類別	有	無	計
哲學 (100)	31		31
宗教 (200)	8	1	9
社會科學 (300)	11	1	12
純粹科學 (400)	92	20	112
技術科學 (500)	28		28
藝術 (600)	15		15
語學 (700)	7		7
文學 (800)	489	74	563
歷史·地理 (900)	298	13	311
計	979	109	1,088
百分比	90.0%	10.0%	100%

H. 廣告

비슷한 主題의 서로 다른 形態의 圖書에 대한 廣告  
案內가 아동들의 讀書興味를 誘發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 案內文을 읽고 그 圖書를 찾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廣 告

단위 : 권

類別	有	無	計
哲學 (100)	3	28	31
宗教 (200)		9	9
社會科學 (300)		12	12
純粹科學 (400)	29	83	112
技術科學 (500)		28	28
藝術 (600)	12	3	15
語學 (700)	1	6	7
文學 (800)	122	441	563
歷史·地理 (900)	141	170	311
計	308	780	1,088
百分比	28.3%	71.7%	100%

I. 특징

특 징

단위 : 권

類別	解 說	附 錄	날말풀이	學習欄	計
哲 學(100)	6	1			7
宗 教(200)			1		1
社 會 科 學(300)					
純 粹 科 學(400)	30				30
技 術 科 學(500)	16				16
藝 術(600)	6	6			12
語 學(700)	1				1
文 學(800)	240	24	10	22	296
史 歷 · 地 理(900)	16	33			49
計	315	64	11	22	412

全體的 39%에 해당하는 圖書에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內容을 보면 지은이에 관한 것, 부모님과  
선생님께 보내는 안내 말 등이 많고, 각 面마다 어려  
운 낱말을 모아 풀이해 준 것은 권장할만하다. 그 밖  
에 각장의 끝부분에 마련된 학습란도 꽤 유익하다.

N. 結 論

兒童의 讀書能力의 發達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리  
라 생각되는 몇 가지 觀點에서 兒童圖書를 評價해 보았  
다.

調査結果를 要約해 보면

<活字의 크기>

國民學校教科書에서 볼 수 있는 21pt.의 活字는 1,088  
권중 한권도 없었다. 滿 11歲 이상 兒童에 適合한 10pt.  
보다 적은 것이 50.2%를 차지하고 있음이 주의를 요  
한다.

<活字의 排列>

兒童圖書에 不適當한 證서는 0.5%로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6.1%가 餘白이 不足하다.

<그림>

95.5%의 圖書가 그림, 地圖, 圖表, 寫眞 등을 충분  
히 활용하였으며 점차 그림 자체에 대한 事實性과 藝  
術性에 대한 研究가 있어야겠다.

<製本>

반양장, 호부장보다 덜 견고한 角背가 48.5%를 차  
지함은 견고함이 필수적인 兒童圖書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이다.

<印刷>

出版企劃에서의 經費문제가 우선적으로 생각되었으  
나, 되도록이면 兒童教育上 紙質이 좋고 쉽게 파손되  
지 않는 모조지나 아트지를 使用함이 바람직하다.

<索引>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색인이 있으면 兒童의 圖書利用法과 실제의 圖書利用에 도움이 되겠다.

<흥미, 광고, 특징>

90%의 圖書가 興味롭게 構成되어 있고 28.3%가 廣告를 活用하고 있다.

39%가 “부모님과 교사를 위하여”, “지은이 소개”, “작품에 대하여”, “略略”, “날말풀이”, “學習欄”, “책 끝에” 등 各種의 特色있는 企劃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첫째 近視眼豫防이란 점에서 큰 活字가 使用되어야 겠다. 둘째, 利用度에 비해 오래도록 파손되지 않는 環背를 택할 것이다. 셋째, 圖書利用上 便宜를 주는 索引, 廣告, 附錄, 解説 등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各種 그림 圖表, 사진 등이 充分히 活用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얻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다 科學的이고 具體的인 基準을

<參考文獻>

- (1) 古野健雄, 「兒童本の 造本」, 兒童讀物と 讀書指導, 讀書指導講座, 第九卷(東京: 牧書店, 1955), p. 40.
- (2) 어린이회관도서관의 장서는 韓國圖書館協會의 選定圖書目錄(I-III)中 兒童圖書部와 大韓出版文化協會의 出版年鑑, 그 밖에 各出版社의 안내문을 기초로하여 1970年 7月 現在 購入 가능한 도서이며 利用對象이 전국의 어린이인만큼 資料構成에 最新性을 유지하고 年間 66, 14 名이 利用하므로 보다 많은 兒童에게 影響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3) 古野健雄, 前掲書, p. 42.
- (4) 阪本一郎, 「讀書心理學의 發達」, 讀書指導의 心理と生理, 讀書指導講座 第二卷(東京: 牧書店, 1955), p. 58.
- (5) 上掲書 p. 60.

「Endless Smile」

내가 근무하는 도서관 앞에 「Endless Smile」이라는 조각이 서 있다.

미국에서 현대 조각을 하는 교수가 교환교수로 왔다가 가는 길에 제작하여 놓고 간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 볼 때는 첫조각을 용접하여 놓은 쇠덩어리로만 보고 지나치던 것이 계속보니 「Endless Smile」이란 이름이 주는 의미가 새삼 사서의 근무 자세를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으며 조각가가 의식적은 아니지만 사서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도서관 앞에 세워 놓은 것 같이 생각이 든다.

도서관의 봉사는 사회가 본래 Give and Take의 관계로 성립되어 있는데 대해서 이용자에게 Give만을 행하고 Take는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가 주된 업무이며 그의 연구는 지식을 탐구하는 모든 이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Information을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없이 그의 필요성에 응하여 이용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사서는 이용자를 위하여 항상 친절한 봉사를 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근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서도 사람일진대 항상 친절하게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다든가 이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친

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는 사서라고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서의 업무, 특히 이용자의 직접 대하는 대출업무나 참고봉사의 경우에는 매일 반복되는 이용자와의 접촉과 동일한 업무의 내용때문에 사무적으로 이용자를 대할 수 있게 되고 누적되는 「만테리즘」에 빠져버려 친절 그 자체보다는 무관심속에서 이용자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서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직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각박한 사회생활과는 떨어져 인류문화의 진수만을 간직한 책속에 파묻혀

그 속에서 회노애락을 이야기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망각한 채 오직 이용자들이 가득 찬 열람실을 쳐다보면서 만족해 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때 만족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갖고, 긍지를 느끼면서 책과 책먼지 속에서 씨름하면서 하루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다.

우리 도서관앞의 조각은 큰 쇠덩어리가 미풍을 받으며 빙글 빙글 한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영혼한 미소를 머금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연상시켜주면서 오직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책과 씨름하는 우리 사서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무언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듯이 오늘도 그 큰 팔을 벌이고 끝없이 끝없이 돌아가고 있다. (展)